

영등포 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따라 걷는



# 영등포 도보여행





YEONG-  
**영등포**  
 DEONGPO  
**도보여행**  
 TOUR

df

COURSE 1	영등포 근현대사	4
COURSE 2	문래창작촌	10
COURSE 3	여의도 이야기	14
COURSE 4	한강 물길	18
COURSE 5	선유도공원	22

## COURSE 1

근대 문화 속으로 시간 여행

## 영등포 근현대사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인 영등포 일대는 1890년대 경인선과 경부선의 개통 이후 근대 시가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들어 조선의 공업화가 추진됐고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영등포 일대는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일본 굴지의 맥주회사, 제분 회사들이 자리 잡았고 1940년대 들어 일본의 금속, 기계공업 공장도 빠르게 늘었다. 현재의 영등포를 보면 과거의 공업도시의 모습은 유추하기 힘들 정도로 현대식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다. 그러나 아직 공업화 초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들도 있는데 대선제분 공장부지, 문래동 철강골목, 경성방직 자리 등이 그것들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낙후된 영등포, 경인로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의 산업, 문화, 상업적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영등포 일대의 변신이 기대된다.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인 영등포 일대는 1890년대 경인선과 경부선의 개통 이후 근대 시가지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 ① 영등포역
- ② 영등포문화원
- ③ 영등포공원
- ④ 영등포 철로육교
- ⑤ 대선제분 부지
- ⑥ 타임스퀘어

## YEONGDEUNGPO

코스 거리	2.5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1

###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공간 영등포문화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75  
㉡ 02-846-0155

영등포문화원은 1999년 8월 7일에 개원 이후 꾸준히 영등포구의 향토문화자원을 보존 및 발굴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빠른 발전에 맞춰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끊임없이 개최하고 있으며 약 108개의 강좌와 75명에 이르는 강사가 문화학교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평생교육 정착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시민들은 영등포문화원을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2

### 아담하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영등포공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75  
㉡ 02-2670-3717

서울특별시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해 1998년 7월 2일 영등포공원이 문을 열었다. 영등포 일대는 과거 최고의 수질로 평가받는 곳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맥주 공장들은 대개 영등포에 위치했다. 영등포공원은 원래 OB맥주(주) 공장이 있던 자리였는데 공원의 중심부에는 1930년대 맥주 제조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던 '순동제 담금술'이 자리하고 있다. 담금술이란 맥아와 홉을 끓이는데 사용되는 대형 솥인데 한 번에 50h(헥토리터)까지 끓여냈다고 한다. (1헥토리터 = 100리터) 담금술의 사이즈는 직경 7m, 높이는 4.5m에 달하며 공원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영등포공원은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휴식의 공간과 여가 활동의 시간을 제공한다.

3

### 대한민국 최초 맥주 공장 자리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 28

과거 영등포 일대는 물이 깨끗하고 맑은 지역으로 평가받았으며 한국 최초의 맥주 공장들이 영등포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내 최초 맥주회사인 화이트진로는 1933년 8월 8일 대일본맥주 주식회사가 설립했다. 공장은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에 위치했는데 현 서울시 영등포구에 해당한다. 과거 맥주 공장 부지는 수백만 가구의 보금자리로 바뀌었고 역사를 기록하듯 110동과 113동 사이에는 크라운 맥주공장 하이트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있다.

4

### 단절된 두 지역의 연결고리 영등포 철로육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서쪽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영등포역 일대는 경인선과 경부선의 분기점이 되면서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했다. 1901년 일본 자본회사인 경부 철도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에 경부철도 기공식을 열었고 부산 초량에서도 공사를 시작했다. 4년 후 개통식이 거행됐으며 1905년 1월 1일부터 전 노선의 운행이 시작되었다. 현대적인 건물의 역사 주변과는 달리 영등포 철로육교로 향하는 길목은 수십 년간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5

과거의 밀가루 공장,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대선제분 부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87
- ㉡ 02-727-8400

일제강점기에 문을 연 대선제분은 82년 된 밀가루 공장이다. 당시 영등포 일대는 방직, 제분 등 다양한 공장이 입지해 한국경제 발전을 이끌었는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제방 산업이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제분공장 건설에는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했기에 공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거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대선제분만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80년 넘게 과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대선제분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6

수도권 교통의 중심  
영등포역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 ㉡ 1544-7788

철도교통과 산업화의 중심지인 영등포역은 1900년 9월 5일 운행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철도 개통해인 1899년 9월 18일에 개통됐다고 알려져 있으나 당시 소개된 사진은 영등포역이 아닌 홍수가 난 자리를 피해 임시로 지은 노량진역 가역사였다. 지금의 영등포역으로 역명을 바꾸고 영등포-경성 간 경부선 직통노선이 부설됐고 1905년부터는 경성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교통의 중심이자 대형 백화점과 마트, 영화관 등이 이웃한 입지조건 때문에 오늘날 영등포역은 한가할 틈이 없다.

7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 ㉡ 02-2638-2000

타임스퀘어는 과거 최초의 조선인이 세운 직조 공장으로 1936년에 지어진 경성방직 옛터이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일본인의 자본으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경성방직은 유일하게 민족의 자본으로 세워졌다. 경성방직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었지만 일본풍의 건축양식에서 벗어나 있으며 처음 지어진 이후 한 번도 외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2004년에 경성방직의 사무동은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성방직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현재 타임스퀘어가 들어섰고 2009년 9월에 오픈, 복합쇼핑몰이자 영등포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타임스퀘어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단순 쇼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영등포 관광정보센터가 광장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PLUS. 더 둘러보기

구립영등포아트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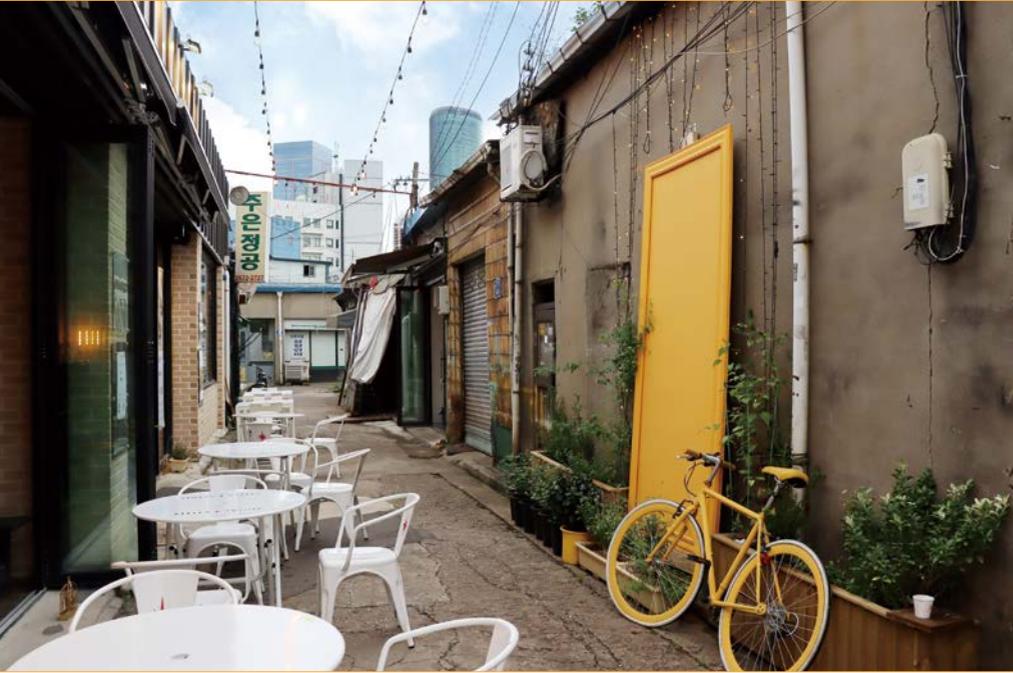
구립영등포아트스퀘어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주민의 일상 속 문화쉼터이자 대표 문화 공간으로, 주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정식 개관한 전시공간이다.

-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 02-3457-7751
- ㉢ 10:00 ~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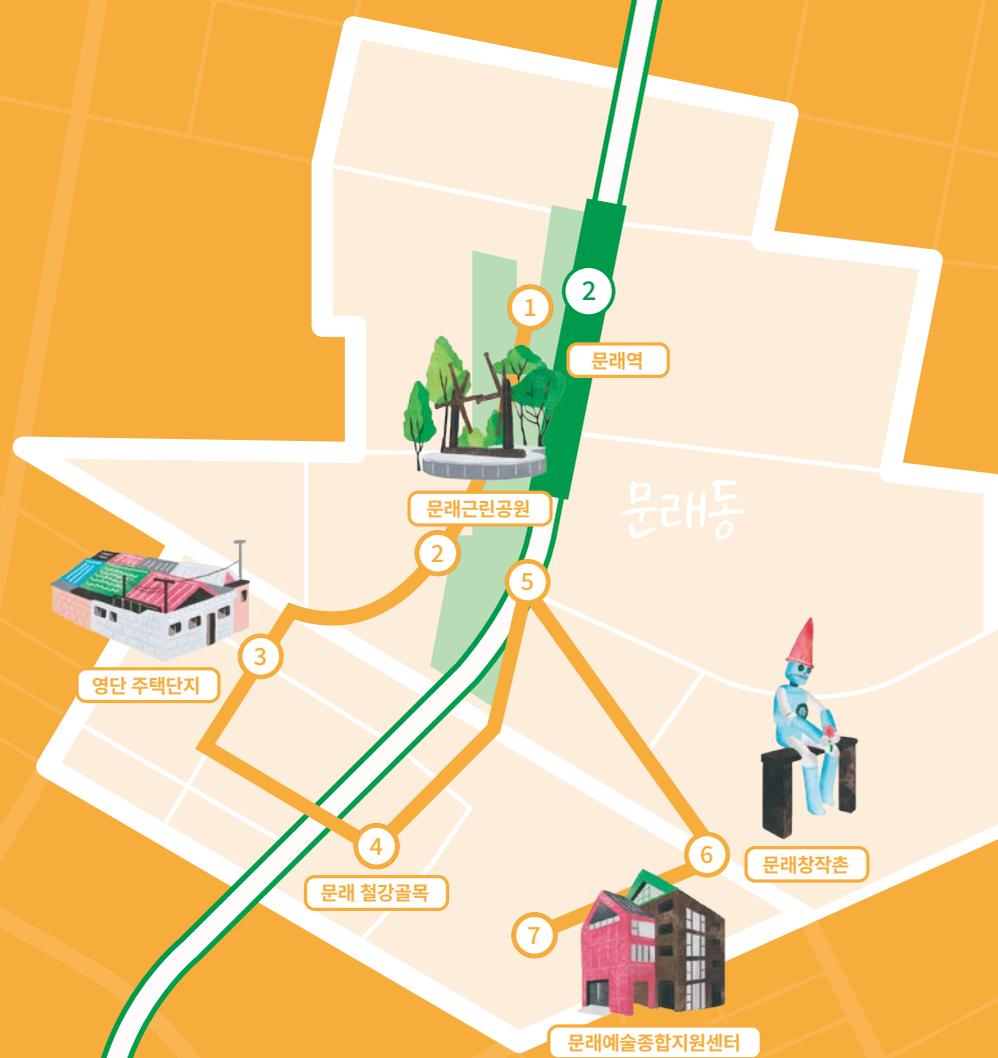
COURSE 2

자생적 예술마을

# 문래창작촌



문래동은 1930년대 군소 방직공장이 들어서자 일본인들에게 계곡정이라 불리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명의 유래는 글이 왔다 해서 문래동이 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실을 짓는 '물레'에서 변형되었다는 쪽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당시 문래동 동쪽에 굵직한 방직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문래는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호황기를 맞았다. 90년대 말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작업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비어있는 철공소를 찾아 문래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 무엇보다도 저렴하게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기에 철강골목은 점차 젊은 예술인들로 채워졌다. 녹이 손 철강소 옆에 예술가의 공방과 레트로 감성의 카페가 들어서면서 문래는 과거와 현재가 재미있게 배합되기 시작했다. 철강산업이 분산되며 지는 해가 될 줄 알았던 문래동은 지난 50년의 역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문래역 일대는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조형물이나 전시품, 다양한 컨셉의 카페와 식당들이 존재한다. 천천히 걸으며 숨은 작품 찾기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과거 문래는 철공소 밀집 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다양한 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호황기를 맞았다. 90년대 말부터는 중국산 부품이 밀려오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가 늘어났는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 ① 문래역
- ② 문래근린공원
- ③ 영단 주택단지
- ④ 문래 철강골목
- ⑤ 문래창작촌 입구
- ⑥ 문래창작촌
- ⑦ 문래예술종합 지원센터

<b>MULLAE</b>	코스 거리	2.0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1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문래근린공원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1  
㉠ 02-2670-3755

문래근린공원은 1986년에 개장한 도심 숲을 조성한 공원이다. 공원은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한 결과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 놀이터와 유아 숲 체험장 등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과거 문래동에 굴직한 방직회사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문래동 지역의 유래는 '물레'에서 변형된 걸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듯 공원 중앙에는 요즘 좀체 보기 어려운 물레 조형물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2

골목은 살아있다.  
문래 철강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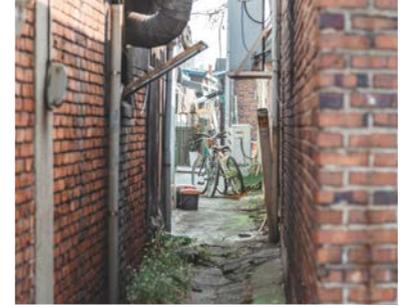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4가 일대

1960년대부터 영등포 서쪽으로 소규모 철공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철공소 밀집 지역을 이뤘다. 철판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지어 다닐 만큼 호경기를 맞았지만 90년대 말 중국산 물품이 들어오고,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문을 닫는 철공소들이 늘어나게 됐다. 쇠파루만 남기고 차갑게 변해버린 철공소 지역에 다시금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반. 작업 공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빈 철공소에 등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술인들의 공방과 오래된 철강소의 색다른 조합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발걸음 하기 시작했다.

3

최초의 근대식 집합주택단지  
영단 주택단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1길 / 143길 / 145길 일대

일제는 이 땅에 식민 통치를 위한 주요 시설을 세웠고, 1941년 7월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했다. 주택단지는 계획적으로 건립되었는데 갑(20평), 을(15평), 병(10평), 정(8평), 무(6평)의 5개 단위로 나뉘었다. 갑과 을형은 일본인 관리를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작은 평수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임대를 원칙으로 사용되었다. 영단 주택단지는 광복 후 가정집이나 철제상으로 쓰이다가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전해 오면서 현재의 문래 철강골목이 되었다.

4

기계금속장인들과 예술인이 함께 이뤄진 공간  
문래창작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2-3가 일대

2003년부터 문래창작촌이 형성되었는데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기획, 전통 예술,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가들도 철공소 공간에 작업실을 얻었다. 철강소 골목은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법한 으스스한 건물들이 이어진다. 낯선 금속 냄새와 쇠소리가 들리는 철공소 골목을 익숙한 듯 오가는 이들은 이곳에 터를 잡은 예술인들. 누렇게 녹이 쓴 철공소 대문은 화려한 색감의 벽화로 재탄생해 방문자의 시선을 빼앗는다.

COURSE 3

역사의 숲, 현재의 숲

# 여의도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 공항은 금융의 중심지로 알려진 여의도 일대였다. 일본이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여의도 공항은 1916년에 건설되고 약 40년간 운영하다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여의도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당시 황무지에 가까운 여의도는 지금의 국제금융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63빌딩, 쌍둥이 빌딩 등이 여의도에 들어섰고 여의도는 고층 빌딩이 즐비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빌딩숲만 있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1971년 여의도 개발 계획에 따라 광장으로 조성됐고, 1997년 현재의 여의도공원으로 탄생했다. 여의도에는 다음 장에 소개하는 스포츠 외에도 황금빛을 내는 ‘63스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상징 ‘국회의사당’,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 ‘전경련회관’ 등의 랜드마크들이 많이 존재한다.



황무지에 가까웠던 여의도는 개발계획에 따라 고층 빌딩들과 공원이 세워지면서 도심 속 심터를 가진 국제금융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b>YEUIDO</b>	코스 거리	1.8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 ① 여의도역
- ② 여의도 포스트타워
- ③ 한국거래소
- ④ 파크원타워 (현대백화점)
- ⑤ LG트윈타워
- ⑥ IFC 서울
- ⑦ SeMA 지하병커
- ⑧ 여의도공원

1

색다른 벙커 전시장  
**SeMA 지하벙커**



-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 ① 02-2124-8868

여의도에 위치한 SeMA 벙커는 19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0년이 넘게 지하에 묵혔다가 2005년 여의도 환승 센터 건립 현지조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외부로 연결된 통로가 3개 있으며 180평에 이르는 큰방과 20평 정도의 작은방으로 나누어졌다.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10월 19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게 되었다. SeMA 벙커는 장소가 가진 역사를 반영한 실험 예술 프로젝트나 역사 갤러리 특별전 등을 운영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더운 여름철 잠시 열기를 식힐 때 머물 수 있는 착한 갤러리 역할도 한다.

2

여의도의 코스모폴리탄  
**IFC 서울**



-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 일대를 걷다 보면 유독 많은 인파가 몰리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IFC 쇼핑몰이다. 2012년 8월에 완공되었으며 3개의 오피스 빌딩과 콘래드 서울 호텔,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쇼핑몰로 구성된 대형 복합상업건물이다. 지하철역에서 연결되는 편리한 접근성과 쇼핑, 외식, 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매장이 입점해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기술이 도입된 건물도 눈여겨볼 만한데 한국 건축상과 서울 건축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IFC 몰은 쇼핑, 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및 팝업존이 열려 많은 시민이 찾는다.

3

단청 모티브를 재해석하다  
**파크원타워**



-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63빌딩이다? 이제 63빌딩이 그 수석어를 파크원타워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총괄 건축한 파크원타워는 2020년 7월 준공되었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되었다. 파크원이 들어서면서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 셈이다. 단조로운 회색빛 빌딩숲 사이에서 붉은색 외부 골조가 단연 시선을 끄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통 문양인 ‘단청’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파크원타워에는 총 4개의 건물로 구성됐는데 2개의 오피스 타워와 함께 현대백화점, 페어몬트 호텔이 오픈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인 만큼 여의도공원과 한강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단지 내에도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다.

**PLUS. 더 둘러보기**

**63스퀘어**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상징이었던 황금빛 건물이며, 전망대와 아쿠아리움 등이 있고 서울세계꽃축제장을 가까워서 즐길 수 있다.

- ④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① 1833-7001
- ⑥ 매일 10:00 ~ 22:00 (매표 마감 21:30)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며, 국회의사당 주변 의원동산 외 한강공원이 있어 계절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 ④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① 02-788-3656
- ⑥ 평일 09:00 ~ 18:00  
(17:00까지 입장 가능,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09:00 ~ 13:00 (12:00까지 입장 가능)

**전경련회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으로 2015년에는 ‘올해의 빌딩’으로 선정되었고, 여의도의 고층빌딩 마천루를 이루는 한 축이다.

COURSE 4

물길 따라 섬이야기

# 한강 물길



한가람이라는 옛말에서 비롯한 한강은 큰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km가 넘는 강폭이 도시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어 서울은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자랑한다. 한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섬들이 있는데 예전 한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한강 섬들은 개발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난지도는 월드컵공원으로, 뽕나무가 많은 섬이었던 잠실 일대는 빌딩숲이 되었다. 반대로 없던 섬이 생기기도 했는데 서래섬은 올림픽대교가 건설될 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한강의 섬들은 퇴적과 침식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한강의 섬은 8곳이다. 그중에서 영등포구는 선유도, 밤섬,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어 한강 속의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다. 각 섬들은 한강공원이나 한강의 다리 위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의 가까운 휴식처이자 여가 생활의 터가 되어주는 한강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한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섬들이 있는데 예전 한강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섬을 가지고 있었다.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 한강 섬들은 개발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b>HANGANG</b>	코스 거리	2.5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 ① 국회의사당역
- ② 국회의사당
- ③ 여의도 한강공원
- ④ 밤섬 (조망)
- ⑤ 셋강생태공원

1

생동감과 활력이 살아있는 곳

**여의도 한강공원 (밤섬조망)**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는 봄이 되면 벚꽃 나들이의 명소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지만 이곳에 위치한 밤섬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밤섬은 과거 주민 수백 명이 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살았으며 만들던 배의 종류만 해도 열 가지가 넘었다.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배 만드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밤섬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강 개발 때문이다. 서울시는 하구를 넓혀 한강이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 밤섬을 폭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62가구 443명의 거주민은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났고 이후 20여 년간 자연 퇴적이 이뤄지다가 지금은 철새 도래지로 거듭났다. 이마저도 서강대교가 세워진 후 철새 서식지가 위협받게 되었지만 초라하게 작아져 버린 밤섬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진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한강을 바라보며 피크닉을 즐기는 인파가 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밤섬을 조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산책하듯 서강대교를 걸어보며, 밤섬을 느껴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여의도를 섬으로 만들어준 물길

**셋강생태공원 (여의도 조망)**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셋강생태공원이 위치한 여의도는 과거 배로 건너야 하는 모래섬이었다. 여의도와 영등포 사이를 갈라놓은 작은 셋강 때문에 여의도는 섬이 되었지만 사실상 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1970년대 중반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의도는 정치, 금융, 언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후 방치되어 있던 셋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었다. 셋강이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를 활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했고 벤치와 매점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동식물의 휴식을 위해 가로등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 최고의 자연 친화형 공원이라고 불릴 만하다. 6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생태공원의 우거진 수풀 너머로는 여의도의 고층 빌딩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PLUS. 더 둘러보기****양화 한강공원**

양화대교는 합정과 당산을 연결해 주는 다리이자 생태공원인 선유도로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풍경이 빼어나서 뱃놀이를 했다는 선유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 선유도의 모습을 갖추었다. 아치형 다리는 밤낮으로 아름답지만 해가 질 무렵 그리고 어둠 속에 조명이 켜져 무지개 다리가 되는 순간 특히 아름답다. 사람들은 무성하게 우거진 물역새길에서 사진을 찍고 5월이 되면 공원은 활짝 핀 장미꽃으로 붉게 물든다.



COURSE 5

쓸모를 다한 산업유산의 재탄생

# 선유도공원



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선유봉은 1968년 한강개발을 통해 선유도 섬이 되었다. 도시의 공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2002년 선유도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선유도의 아름다움은 공원 내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양화대교나 한강공원에서 조망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특히 한강시민공원에서 선유도로 향하는 선유교는 꼭 가봐야 할 한강교로 꼽고 싶다. 서울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가 있지만 선유교는 한강에서 유일한 보행자 전용 다리이다. 선유교는 한불 수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 건축가 루디 리치오티가 설계했으며 직선과 타원이 교차하는 조형미가 아름답다. 선유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한강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란 걸 알게 해주었고 다리 위에서 선유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밤에는 무지개다리를 연상하는 조명이 켜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은 언덕이 있어 신선들이 유람을 즐겼다는 선유봉은 1968년 한강개발을 통해 선유도 섬이 되었다. 도시의 공업화에 따라 시민들의 식수를 제공하는 정수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2002년 선유도공원으로 새롭게 변화했다.

<b>SEONYUDO</b>	코스 거리	1.5 Km
	코스 시간	1시간 30분

- 1 선유도역
- 2 선유 걷고 싶은 거리
- 3 선유도공원
- 4 양화대교

1

다양한 체험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선유 걷고 싶은 거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

2009년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이 개통하면서 양평동 일대는 공업지구로의 모습을 벗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외관은 옛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내부는 다양한 컨셉을 가진 개성 있는 카페나 공방들이 들어섰는데 이 일대를 쾌적하게 조성해 선유 걷고 싶은 거리가 탄생했다. 이후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2015년부터 '시월의 선유' 라는 플라마켓이 매년 열리고 있다. 지역주민과 예술인, 상인들이 함께 모여 문화와 나눔을 공유하는 마을 축제이며 2019년 4월에는 국내 최초로 고양이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예로부터 선유도의 봉우리가 고양이를 닮아 꿩이산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착안해 '선유마을 고양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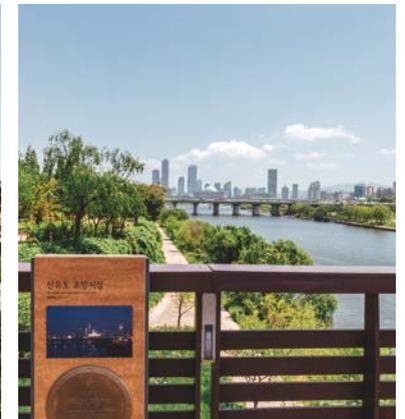
2

폐정수장의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물의 정원  
선유도공원



②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43

과거 선유봉이라 불린 이곳은 작은 봉우리가 있고 풍경이 빼어나 신선들이 유람하며 즐기던 곳이었다. 이후 양화대교가 개통되고 1968년 본격적인 한강개발이 시작되면서 깎여나가다가 섬이 되었다. 1978년부터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으로 20여 년간 사용되다가 폐쇄되었고 2002년 5월에 지금의 모습인 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선유도공원은 산업화의 증거물인 정수장 시설을 최소한으로 개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다. 송수 펌프실로 쓰던 건물은 보수하여 한강역사관이 되었고 계단식 수조에서는 물이 정화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공원은 녹색 기둥의 정원, 바람의 언덕, 자생습초지, 전망대 등 다양한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선유도는 도시락을 싸와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아 도심 속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과거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했던 선유도는 현재 서울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일상 속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 영등포 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따라 걷는 영등포 도보 여행 예약방법



**운영시간** 토/일요일 10시 (기상여건에 따라 운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언어** 한국어  
**이용료** 무료 (입장금, 교통비등은 개인부담)

### 영등포 관광해설사와 함께 이야기 따라 걷는 영등포 도보 여행

**발행처** 영등포구  
**발행일** 2021년 11월  
**기획·제작** 문화체육과  
**홈페이지** www.ydp.go.kr  
**편집·디자인** 피그마리온





